

'현우경' 이야기 (28)

비구가 된 개

어느 수행승의 전생...비구→개→장자의 아들

어느 나라에 여러 나라를 오가며 장사하는 상인들이 있었다. 상인들은 오랜 시간 바깥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식량을 비축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길을 지나다 상인들을 발견하게 됐다. 그 개는 너무 배가 고파 상인들의 음식을 탐했다.

'배가 너무 고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다... 저기 저 고기 한 점만 베어 먹으면 소원이 없겠구나.'

개는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 상인들이 모두 잠이 들자, 식량 창고로 가 고기를 훔쳐 먹었다. 그때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한 상인이 개가 음식을 훔쳐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화를 냈다.

'이 음식을 모두 훔쳐 먹다니! 너를 가만 두지 않을 테다!'

그 상인은 화가 나 개를 몹시 때렸다. 상인에게 두들겨 맞던 개는 결국 다리가 부

러지고 말았다. 상인은 개를 빈 들녘에 버리고 다른 상인들과 길을 떠났다. 개는 고통 속에서 괴롭게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사리푸트라가 우연히 죽어가는 개를 발견하게 됐다. 사리푸트라는 자신이 탁발해 온 밥을 개에게 먹이고 부러진 다리를 고쳐줬다. 사리푸트라와 정성스런 간호 덕에 개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나에게 은혜를 갚는 대신 내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거라.'

사리푸트라는 개에게 부처님 법을 설했다. 개는 사리푸트라를 따라 마음 깊이 새기고 부처님 법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지나 개는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 후로 몇 겁의 시간이 흘러 어느 장자의 집 아들로 태어나게 됐다.



삼화·강병호

그때 그의 아버지는 탁발하러 다니는 한 스님을 발견하게 됐다. 아버지가 물었다.

'스님께서서는 매번 혼자 탁발하러 다니십니까?'

'그렇소이다.'

'그렇다면 혹시 제 아들을 데리고 함께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출가시키겠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게는 균제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 심부름을 시키기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스님께 보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 일곱 살이 되던 해, 스님이 장자의 집을 찾아왔다.

'자네는 몇 년 전, 나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는가? 자네 아들을 데리러 왔네.'

장자는 반갑게 스님을 맞이했다.

'물론입니다. 아들에게 떠날 차비를 하라 이르렀습니다.'

스님은 아들을 데리고 자신이 머무는 절로 향했다. 절에 도착한 뒤, 스님은 아들에게 부처님 법을 설했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야 할 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균제는 스님의 말에 따라 열심히 도를 닦으며 생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행을 하던 균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나는 전생에 무슨 일을 했으며, 스승님을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일까?'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균제는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어째서 제가 스승님을 만나 출가하게 된 것이며, 전생에 저는 어떤 몸으로 살았습니까?'

스승님이 말했다.

'너는 전생에 개였으며, 과거에 나를 만나 부처님의 법을 알았기에 지금 출가하게 된 것이다.'

'저는 왜 전생에 개의 몸을 받은 것입니까?'

'먼 옛날 한 마을에 여러 명의 비구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때 매우 청아한 목소리를 가진 젊은 비구가 있었다. 사람들은 젊은 비구가 들려주는 노랫소리를 좋아했다. 또 늙은 비구도 함께 살았는데, 그도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늙은 비구는 목소리가 매우 탁했다. 어느 날 젊은 비구가 늙은 비구에게 말했다. '당신의 목소리는 나처럼 청아하지 못합니다. 마치 개 짖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때의 젊은 비구가 지금의 너였으며, 그 후 500년 동안 개로 살아온 것이다.'

스승님이 말했다.

'너는 전생에 개였으며, 과거에 나를 만나 부처님의 법을 알았기에 지금 출가하게 된 것이다.'

'저는 왜 전생에 개의 몸을 받은 것입니까?'

'먼 옛날 한 마을에 여러 명의 비구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때 매우 청아한 목소리를 가진 젊은 비구가 있었다. 사람들은 젊은 비구가 들려주는 노랫소리를 좋아했다. 또 늙은 비구도 함께 살았는데, 그도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늙은 비구는 목소리가 매우 탁했다. 어느 날 젊은 비구가 늙은 비구에게 말했다. '당신의 목소리는 나처럼 청아하지 못합니다. 마치 개 짖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때의 젊은 비구가 지금의 너였으며, 그 후 500년 동안 개로 살아온 것이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30**  
-전생의 다섯 어머니-

구성-김홍인

옛날에 아라한을 스승으로 모시는 어린 동자승이 있었는데 신통력이 있었다.

말이 좀 쉬었다가주세요!

그렇게 말했어?

뭐야 지금 나보고 웃는거야?

어쭙 한숨까지-?

짜식! 신통력 좀 있다고 건방졌어!

그때?

후후! 가득이나 슬퍼서 눈물이 나는 판인데...! 밥송이를 던지시디노!

뭐가 슬퍼?

전생의 다섯 어머니들이 저를 그리워하며 우는게 보여요...! 저는 잘못 어린 나이에 죽었거든요-

첫번째 어머니는...

후후... 아이가 살아 있으면 지금쯤 장가갈 나이인데...!

두번째 어머니는...

엄엄~ 우리 아이가 살아있으면 오순도순 함께 먹을텐데...!

세번째 어머니는...

크후! 우리 아이도 살아있으면 한창 뛰어놀텐데...!

네번째 어머니는...

우리 둘이 살아있으면 저렇게 재롱피울텐데...! 후후...!

까불지 마!

까불 거야!

후후...!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그리고 금생의 어머니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저 하나 때문에 다섯의 어머니가 괴로워하고 있으니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후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 이미 제도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생의 다섯 어머니는 제도받고 있지 못하면서 도리어 제 걱정만 하고 있으니 마음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에허~ 나무아미타불...!

그랬구나-

그러지...!

끝

대한민국 상위 0.1% 만이 경험할 수 있는 명품을 99%의 모든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00년의 향기 SINCE 1920**

**松剛堂 송강당**

송강 경옥보

○ 한의원에서는 수행승들에게 왜 공진보를 권하는가? (수행승의 필수품) 수행승들의 피로회복, 뇌세포활성화, 집중력과 암기력을 강화해주며 밤을 새워도 피로가 없다. 강남에서 고3 수행생이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2~3시간만 수면을 취해도 공진보 복용 후 15분이 지나면 바로 생기를 찾는다.

○ 공진보를 먹으면 술이 물이 된다? 간기능저하로 인한 질환(지방간, 간경변)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간의 해독 능력이 좋아진다. 간이 좋으면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 성장기 청소년의 성장발육,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 개선 만성피로, 기억회복, 폐결핵 등 만성 호흡기질환에 효능이 매우 탁월함

○ 당뇨, 갑상선, 간이 허약하신 분 복용 후 그 효능에 놀라실 것입니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파라다이스 면세점 입점

주문 전화 **019-590-0009**

송강/대명 공진보

귀하더 귀한 자연산 연삼을 정성스럽게 말려 차로 끓여 드실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연삼은 높은 산 습한지대에서 자라 정말이지 정성들어 채취하며 맑은 물에 씻어 생으로서는 저온냉동고에 보관하고 말려서는 진공포장하여 보관하며 너무나도 깊은 산속에 자라는 연삼을 힘들게 채취하여 어려움자님들과 함께 건강을 지키고자 판매하고 있사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연삼, 이런분께 권합니다!!**

-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 때문에 걱정하신 분.
- 평소 술을 많이 드시거나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
- 체력이 쇠약해져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

어린이에게는 면역력을!! 청소년에게는 질병예방을!! 어른에게는 원기회복을!! 노인에게는 장수의 기쁨을 드립니다!!

※ 연삼은 당뇨와 고혈압을 다스리고 생으로도 효과가 있으나 말렸을 경우 약효가 높아집니다.

**연삼은 노다테인성분과 사포닌이 산삼을 능가할 정도로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 예방과 노화방지 및 항암작용에 효과가 있다.**

연삼 구입문의: 김종관 010-8440-1096  
구입시 입금계좌: 농협 356-0542-3969-53 [예금주: 허필옥]

**물기 닦는일 힘드시죠!!**  
아주 쉽고 빠르게 닦이고 광택이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숯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놋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징**

-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 코팅 광택약이어서 흠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본제품은 10년간 사용하셔도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용량 : 525g  
사용기한 : 10년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농협 312-0029-1189-81 예금주: 고태웅

**영일상사** 네이버에서 「영일상사」를 검색하세요.